

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2월 / 통권 492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 광사



證道歌 (증도가)

유 마 대 사 돈 제 의
維摩大士頓除疑가
환 동 혁 일 소 상 설
還同赫日銷霜雪

유마대사는 몰록 의심을 제거한 것이
뜨거운 태양이 서리나 눈을 녹이는 것과 같네.

부 사 의 해 탈 력
不思議解脫力이여
묘 용 항 사 야 무 극
妙用恒沙也無極이라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여
묘한 작용이 항하강의 모래 수와 같아 다함이 없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정치의 부재시대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大作佛事(대작불사) / 무경스님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12

알림마당 · 13

임인년 정초기도 안내

입춘 · 삼재소멸기도(용, 쥐, 원숭이)안내

고맙습니다

제20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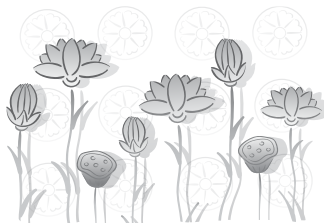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삼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정치의 부재시대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우리 몸에는 존재의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포나 장기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맹장이나 피부의 주근깨 등이다. 이들의 필요 용도가 언젠가 밝혀질지 모르지만 아직은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 세포들이나 장기들은 우리 몸의 중요 위치를 일부 점하고 중요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엄연히 존재한다.

가끔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표현하는 데 감히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물체가 존재하는 것이 우주며, 수없이 다양한 모양새의 물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주다.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세포와 장기도 우주의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성질의 조직이나 세포가 존재하기에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한다.

우리는 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나누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잘 간직하려고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필요성과 불필요성은 엄밀히 말하면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편협성이며, 시대나 장소에 따른 선택성의 한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지금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날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별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맹장이나 주근깨가 언젠가 무슨 이유로 있게 된건지 밝혀질 날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이렇듯 지금 사회악으로 간주되는 불필요한 구성원들도 상당수 있다.

국회에서는 폐악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자꾸 만들고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한 제도를 매일 만들고 있다.

민주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다. 저마다의 특성과 저마다의 장기와,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소리를 내고 다양한 숨씨를 발휘하여 큰 어우름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회라야 거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맹상군이 진나라 소왕에게 잡혀 구금되어 있을 때 닭울음소리 잘 내는 사람의 덕을 보고 도둑질 잘하는 사람의 덕을 보아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계명구도'는 유명한 이야기다.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따라 적재 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도둑질 잘 하는 사람과 닭울음 잘 내는 사람 등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잘 이용하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라?

'부처와 중생이 동락하고 선사와 도둑이 함께 어우르는 세상을 화장세계'라고 화엄경에서는 설파한다.

우리는 도둑이 없는 사회를 매양 꿈꾸지만 절대로 도둑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도둑은 가진자들 소위 선민들이 나누

지 않아서 생긴 파생악이다.

도둑이 개과천선하면 누구보다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다. 감동의 스토리는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국가는 도둑을 제거하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도둑이 개과천선하는 데 힘을 쓰며 그 방법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는 포용 정치를 해야한다.

지금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자기의 정치적 주관은 거의 없는 정치인 부재 시대를 살고 있다. 남의 잘못을 헐뜯는 것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소인배들만 득실거리고 있다.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정치 노선과 내 나아갈 바를 선명히 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없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며 국민적 불행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반대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의견을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통 큰 정치가 저 광활한 우주를 본뜬 소 우주의 몸을 다스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다.

大作佛事(대작불사)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절집에 살다 보면 이따금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된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볼 때마다 적응하기 어렵다. 대충 3가지 경우를 추려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열심히 참선(명상)을 하는데도 그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다. 허공처럼 걸림 없는 마음을 닦기 위해 참선하는 것인데, 도리어 웅졸하게 그 속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기이한가.

두번째 열심히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데도 자비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비신주를 외우면 외울수록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워져야 정상인데, 무자비한 모습으로 발광하

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걸 기이함을 넘어서 기괴하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열심히 <금강경>을 읽는데도 아상(我相)이 높아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相)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된게 경전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상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닌가.

도대체 인과(因果)의 법칙이 왜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만큼은 확실하다.

참선을 하면서 속이 좁아졌다는 것은 참선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대비신주를 외우면서 분노와 질투에 휩쓸린다는 것은 기도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아는 척' '대단한 척' '특별한 척'을 한다는 것은 <금강경>을 잘못 읽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동안의 공부가 이 지경이 되었다면, 참선을 백년동안 했든, 대비신주를 백만독 외웠든, <금강경>을 거꾸로 암기하든, 누가 그 공부를 인정해 주겠는가?

사람치고 '복(福)'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절을 새로 짓고, 불상을 개금하고, 스님들 가사(袈裟)를 지어 드리는 불사(佛事)에 동참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에 동



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성스럽게 변화시키고, 주변 이웃에게 불교를 적극 소개하여 또 한 분의 새로운 부처님을 탄생 시키는 일이다.

즉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씩 성장시켜 나가고, 주변 이웃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기연을 맺어주는 것이야 말로, 가장 뛰어난 복을 쌓는 '대작불사(大作佛事)'라 할 수 있다.

지금 대광사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시작되는 대광불교대학 20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때문에 불자님들 가운데 아직 불교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신심과 시간을 내시어 바르게 참선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경전을 공부하여 올바른 불자로 거듭나는 대작불사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미 불교대학을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도 주변 이웃에게 대광불교대학을 홍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는 새로운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것만큼이나 불사가의한 복을 쌓는 불사이기 때문이다.

주지스님 <대승백법명문론> 특강

대승백법명문론은 불교란 무엇이고, 수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 놓은 귀중한 논문입니다. 때문에 불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불자님들께는 필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직장인들을 배려하여 목요일 저녁7시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부터(주1회)
저녁 7시 ~ 8시 30분
- ◆ 장소 : 대광사 불교대학 대강의실
- ◆ 접수 문의 : 055) 545 - 9595

소원성취다라니 108독 기도

- 일 시 : 3월 9일~17일 오후1시 30분부터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 원



◎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 ◇ 2월 1일: 설날합동재사 오전 7시 설법전
- ◇ 2월 1일: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3일: 정초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2월 7일: 정초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2월 11일: 입춘삼재소멸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13일: 입춘삼재소멸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임인년 정초기도 안내

- 일 시 : 2월 3일~7일 오전10시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 원

입춘·삼재소멸기도(용, 쥐, 원숭이)

- 일 시 : 2월 11일~13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 입춘(3만 원) / 삼재소멸(1인당 2만 원)



대광후원회

(2021.12.18~2022.1.17)

홍승운 20,000	정진이 10,000	김지현 50,000	강성진 10,000
황두관 10,000	김병문 20,000	이봉희 20,000	김재우 100,000
김경남 10,000	박미애 10,000	조한분 50,000	㈜카텍 300,000
공상섭 50,000	정연수 30,000	배수진 30,000	박진호 100,000
박호도 20,000	윤소영 20,000	조인우 10,000	원광한의원 100,000
변창인 20,000	정대식 30,000	조우현 1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0,000원 / 유미란 50,000원

♥ 지혜의말씀 후원

구명희 1,000,000원 / 양재봉 10,000원 / 김용근 20,000원 / 주창은 50,000원
피교순 20,000원 / 이용원 10,000원 / 김영우 100,000원

♥ 동지공양(2021년)

이헌실 / 김남훈 / 고봉주 / 고태우 / 김종열 / 황인섭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 : 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佛紀 2566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0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2년 3월 8일~3월 30일	2022. 4. 5(화)~12. 7(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계일	2022년 4월 2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1일부터 ~ 2022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 입학원서 메일 및 팩스발송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